

2023. 2. 14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2월 14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

백제학연구소장

박종균

02-2152-5950

주 무 관

이장웅

02-2152-5951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2쪽

관련 누리집
(메뉴)

baekjemuseum.seoul.go.kr
공지사항/자료실

한성백제박물관-한국고대사학회 '세계사 속의 고대(古代)' 주제로 합동토론회 개최

- 17일(금) 한국고대사학회와 공동으로 “세계사 속의 고대(古代)-개념 및 시공간” 주제 토론회 개최
- 한국 고대사와 고고학은 물론, 중국사, 일본사, 중동사 등 세계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대에 관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 진행

- 한성백제박물관은 한국고대사학회와 공동으로 “세계사 속의 고대(古代) -개념 및 시공간”을 주제로 동계 합동토론회를 2월 17일(금)에 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한성백제박물관과 한국고대사학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학술회의를 지속적으로 함께 개최하고 있다.
- 공동주최 합동토론회는 먼저 “한국사의 ‘고대’와 초기국가”에 대한 박대재 고려대학교 교수의 발표와 “고고학에서 본 한국 고대사”에 대한 김대환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의 발표로 시작한다.
- 이어 세계사적 관점에서 “중동사의 고대”에 대하여 김아리(파리1대학), “이집트사 속의 고대”에 대하여 유성환(서울대), “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

의 고대사”에 대하여 김경현(홍익대)의 발표가 이어진다.

- 또한,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“중국 고대에 대한 상상 : 고대의 고대, 현대의 고대”에 대한 김병준(서울대), “일본 고대사 연구의 ‘왕조(王朝)’ 개념”에 대한 김현경(서울대)의 발표로 마무리한다.
- 주제 발표 이후에는 심재훈 단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권오영 서울대학교 교수와 여호규 한국외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여 전체 발표자와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.

□ 이번 공동주최 합동토론회는 한국 고대사와 고고학은 물론, 중국사, 일본사, 중동사, 이집트사, 그리스 로마사 등 세계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대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함께 논의한다는 의의를 지닌다.

□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 관장은 “이번 한국고대사학회와의 학술회의 공동개최를 계기로 한국고대사를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사 관련 학술 교류와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도 한성백제박물관은 한국 고대사 및 고고학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□ 이번 공동주최 학술회의는 당일 한성백제박물관 대강당에 방문하여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, 한성백제박물관 누리집(baekjemuseum.seoul.go.kr)에 게재된 자료집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.